

# 쉬운 일상적 언어로의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

## -봐브(1) 접속사의 기능-

한동구\*

### 1. 문제의 제기

구약성경이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신약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 즉 민간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 점은 성경을 보다 쉬운 언어로 또 일상적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신학적 요구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비단 성경이 기록될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은 쉽고 일상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동일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쉬운 일상적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요구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표준 성경’을 들 수 있다. ‘표준 성경’이란 예배나 성경 교육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으로, 이는 마치 계시의 표준과 같아 다른 번역 성경의 사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또 종교-정치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한다.

오랫동안 한국 개신교에서는 『개역한글판』 성경이 표준 성경처럼 여겨졌다. 이 성경은 “소위 ‘가라사대’ 성경”이다. 그 이후에 ‘가라사대’라든지, 어려운 한문투의 표현을 약간 개정한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와 표준 성경으로서의 『개역한글판』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개역한글판』 성경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서술어는 여전히 고전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르매”와 같은 어투들로 가득하다. 이런 고전적 어투로 된 서술어<sup>1)</sup>의 경우, 시제<sup>2)</sup> 인칭<sup>3)</sup> 태<sup>4)</sup> 및 전하고자 하는 미묘한 감정<sup>5)</sup> 등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을 대부분 모호하게 만든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이러한 고전 어투가 제거된다면, 성경은 쉬운 일상어로 전

\* 평택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여기에서 서술어란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를 말하며, 한국어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를 말한다.

2) 과거, 현재 및 미래

3) 1인칭, 2인칭, 3인칭 및 단수와 복수를 모두 포함함.

4) 능동, 수동 및 사역

5) 존칭, 평칭, 하칭 등의 표현들을 말함.

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와 한글 사이에는 문법구조가 달라,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법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의미나 상황이 다소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브(1)-접속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유의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히브리어 바브-접속사는 대등한 단어나 문장을 연결할 때 ‘와(과)’ 혹은 ‘그러나’의 의미로 사용한다.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아닌, 바브-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경우, 병렬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 문장을 한국어에서는 중문이라 부른다.

히브리어에서는 바브-접속사를 사용한 중문이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지 않은 경우에 복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복문이란 한 문장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문을 통하여 다양하게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 복문에서는 ‘주문장-부문장’ 혹은 ‘부문장-주문장’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7:6의 경우,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바브-접속사를 사용하여 중문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복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וַיְבֹא הוּשַׁי אֶל-אַבְשָׁלוֹם וַיֹּאמֶר אֲבִשָׁלוֹם אֵלָיו לֵאמֹר

『개역』: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개역개정』: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안:

후새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6)

RSV: And when Hushai came to Ab'salom, Ab'salom said to him, “ … ”

위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바브-접속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브-접속사를 사용하였으므로,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어 번역문에서는 첫 번째 문장을 시제-부문장으로 번역하여, 부문장과 주문장이 결합된 복문으로 이해하였다.

한국어 번역의 경우,<sup>7)</sup> “이르매”라는 동사적 표현을 통하여 이 미묘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sup>8)</sup> 두 개의 대등한 문장의 연결인지, 한 개의 부문장과 한 개의

6) 한동구, 『신경향 히브리어 문법 개정』(서울: 도서출판 B&A, 2008), 44.

7) 여기에서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이해를 돕는 유연한 번역으로 “원문에 충실한” 일대일 번역과는 거리가 멀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8) 『개역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의 차이는 “가로되” 대신에 “이르되”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주문장의 연결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마도 바브(1)-접속사의 단순한(혹은 일차적인) 의미를 따라, 병렬적으로 연결된 문장, 즉 중문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영어 번역문과 같이 복문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더욱이 영어의 경우, **When**과 같은 접속사가 시제부문장을 이끌고 있어, 명확하게 부문장과 주문장이 결합된 복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When**과 같은 접속사가 없으므로, 단순히 부사어( ... 때)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브-접속사가 이끄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문/부문장과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제-부문장(§2), 원인-부문장(§3), 비교-부문장(§4), 결과-부문장(§5) 그리고 목적-부문장(§6).

## 2. 시제-부문장

앞서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브(1)-접속사를 통하여 두 문장이 연결될 경우, 선행하는 문장을 시제-부문장/종속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선행 시제, 동시시제 및 후행시제 등 모두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연속적 행위를 나타낸다. 때로는 선행 시제, 동시 시제 및 후행 시제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결합하여 시제 부문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1) 대개 동시시제는 능동분사를 통하여 표현한다(창 19:1).

창 19:1a וַיָּבֹאוּ שְׁנֵי הַמַּלְאָכִים סְדֹמָה בְּעֶרְבַּי וְלוֹט יָשֵׁב בְּשַׁעַר-סְדֹמָה

창 19:1b וַיֵּרְאוּ-לוֹט וְנָקָם לְקִרְיָתָם וַיִּשְׁתַּחֲוּ אַפְּיָם אֲרָצָה

『개역』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개역개정』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제안: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을 때, 그 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

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NIV:

The two angels arrived at Sodom in the evening, and Lot was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

When he saw them, he got up to meet them and bowed down with his face to the ground.

창세기 19:1에서는 다섯 개의 문장이 모두 바브-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19:1상반절에서 첫 번째 문장은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다”이며, 두 번째 문장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이다.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모두 두 문장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중문으로 읽고 있다. 다만 한글 번역의 경우 “마침”이라는 부사어를 통하여 동시 시제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그<=롯>가 보았다)의 연결의 경우, 두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므로, 한글 번역문에서는 병렬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행위는 지속적 행위이며, 그가 천사들을 본 행위는 일순간의 일이므로, 두 행위를 등가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행위이다. 따라서 영어 번역에서는 둘째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고, 셋째 문장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셋째 문장과 넷째-다섯째 문장의 연결도 시제-부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2) 선행 시제는 열왕기하 6:32에서 잘 보여준다. 이 경우 시제-부문장에 선행 시제를 나타내는 접속사 **בְּתָרֵם**(-전에)가 함께 사용되었다.

**בְּתָרֵם יָבֵא הַמַּלְאָךְ אֵלָיו וְהוּא אָמַר אֶל-הַזְּקֵנִים**

『개역』: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개역개정』: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제안:

그 사환이 그에게 오기 전에,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RSV: but before the messenger arrived, Eli'sha said to the elders,

NKJV: but before the messenger came to him, he said to the elders,

3) 후행 시제는 창세기 39:5에서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시제-부문장에 후행 시제를 나타내는 접속사 **מֵאָז**(-이래로)가 함께 사용되었다.

וַיְהִי מֵאָז הִפְקִיד אֱתוֹ בְּבֵיתוֹ ... וַיִּבְרָךְ יְהוָה

『개역』: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 복을 내리시므로

『개역개정』: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 복을 내리시므로

제안:

그(보디발)가 그(요셉)에게 그의 집안을 ... 감독하게 한 이래로, 야훼께서는 축복하셨다.

RSV: From the time that he made him overseer in his house ...

### 3. 원인-부문장

주문장에서 진술, 요구, 위협 등을 나타낼 때, 부문장에서 이에 대한 원인/근거를 필요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근거와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봐브-접속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1) 주문장에서 ‘요구’를 표현한 다음에, 이에 대한 근거를 봐브-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다.

대상 14:10a וַיִּשְׂאֵל הַיּוֹד בְּאֱלֹהִים לֵאמֹר הֲאֵעֱלֶה עַל-פְּלִשְׁתִּים פְּלִשְׁתִּים וְנִתְתָּם בְּיָדִי

대상 14:10b וַיֹּאמֶר לוֹ יְהוָה עֲלֶה וְנִתְתָּם בְּיָדֶךָ

『개역』: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개역개정』: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안: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제가 블레셋에게로 다시 올

라간다면, 당신은 그들을 저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답하였다: “올라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KJV: And David enquired of God, saying, Shall I go up against the Philistines? and wilt thou deliver them into mine hand?

And the LORD said unto him, Go up; for I will deliver them into thine hand.

역대상 14:10은 다윗의 질문(대상 14:10상반)과 야훼 하나님의 답변(대상 14:10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윗의 질문(대상 14:10aβγ)에서는 조건-부문장(대상 14:10aβ: 제가 블레셋에게로 다시 올라간다면)과 주문장(대상 14:10aγ: 당신은 그들을 저의 손에 붙이겠습니까?)으로 세분화 할 수 있고; 야훼 하나님의 답변(대상 14:10bβγ)에서는 명령문으로서의 주문장(대상 14:10bβ: 올라가라!)과 원인-부문장(대상 14:10bγ: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번역과는 달리, 한글 번역에서는 결과-부문장처럼 번역하였다.

2) 시편 60:12(히13절)에서는 주문장에서 ‘화자의 의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원인-부문장을 봐브-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다.9)

בְּאֱלֹהִים נַעֲשֶׂה-חַיִּל וְהוּא יְבוֹס צְרִינֵינוּ

『개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개역개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대적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KJV: Through God we shall do valiantly:

for he it is that shall tread down our enemies.

9) 봐브-접속법은 원칙적으로 산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법이다. 그렇다고 시 문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법은 아니다. 다만 번역 과정에서 문법적 요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를 산문처럼 번역한다면, 시문장의 아름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창세기 22:12에서는 주문장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봐브-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근거절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כִּי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봐브-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sup>10)</sup>

12a α β וַיֹּאמֶר אֱלֹהִים לְאַבְרָהָם וְאַל־תַּעֲשֶׂה לְךָ מִאֲנִיָּה

12b α כִּי עַתָּה יָדַעְתִּי כִּי־יָרָא אֱלֹהִים אֶתָּה

12b β וְלֹא תִשְׁכַּח אֶת־בְּנֶךְךָ אֶת־יְחִידְךָ מִמֶּנִּי

『개역』: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개역개정』: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안:

그는 말했다: “너의 손을 그 소년에게 뻗지 말아라, 또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조차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NRSV:

He said, “Do not lay your hand on the boy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since you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from me.”

#### 4. 비교-부문장

두 사실 간의 비교를 표현할 때에도 종종 봐브-접속사로 연결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욥 5:7 כִּי־אֲדָרָם לְעֵמֶל יוֹלֵד וּבְנֵי־רָשָׁף יִגְבְּיָהּ עִנְיָ

10) 출애굽기 23:9에서도 봐브(ו) 접속사로 이끄는 이유절과 כִּי 접속사로 이끄는 이유절이 중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방 나그네를 너는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ו) 너희는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며, 또 왜냐하면(כִּי)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개역』: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

『개역개정』: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제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KJV: Yet man is born unto trouble, as the sparks fly upward.

### 5. 결과-부문장

박브-접속사로 이끄는 문장이 결과-부문장을 나타낼 때도 있다. 이 때의 형태는 박브-접속사와 당위 명령형(Jussiv)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특별히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자주 나타난다.

민 23:19 לֹא אִישׁ אֵל וְיִכְיֹב וּבֶן-אָדָם וַיִּתְנַחֵם

『개역』: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개역개정』: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제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도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는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KJV: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either the son of man, that he should repent

호 14:9(히10) מִי חָכֵם וַיִּבֶן אֱלֹהִים וַיִּבְנוּ וַיִּדְעוּם

『개역』: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개역개정』: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제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는가?

ASV: Who is wise, that he may understand these things?  
prudent, that he may know them?

민수기 23:19a에서는 주문장(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다음에 부문장을 이끄는 부사어 ‘그러므로’를 통하여 결과-부문장을 분명하게 표현하였으나, 호세아 14:9(히10절)에서는 부문장을 이끄는 부사어 ‘그러므로’ 없이, 결과-부문장으로 표현하였다.

## 6. 목적-부문장

박브-접속사로 이끄는 문장에서도 목적-부문장을 표현하기도 한다. 목적-부문장은 부사절로서, 주문장의 한 구성 요소인 목적절과는 다른 기능을 한다. 그 용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sup>11)</sup> 의문문(삼하 9:1, 3), 기원문(시 51:9) 또는 명령문(왕상 11:21) 다음에 박브-접속사로 이끄는 목적-부문장을 표현한다. 박브-접속사로 이끄는 문장이 때로는 부정-목적-부문장(출 28:43; 30:20; 삼하 13:25)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 51:7(히9) תְּחַטְּאֵנִי בְּאַזְבֵּי וְאַטְהַר  
תְּכַבְּסֵנִי וְיִמְשְׁלֵנִי אֲלֵבִין

『개역』: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개역개정』: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안: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RSV: Purge me with hyssop, and I shall be clean;  
wash me, and I shall be whiter than snow.

출 30:20 כְּבָאֵם אֶל-אֱהֶל מוֹעֵד יְרַחֲצוּ מִמֶּם וְלֹא יָמָתוּ

『개역』:

11)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 2003), 754(§165 a).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개역개정』: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 물로 씻어야 한다.

NIV: Whenever they enter the Tent of Meeting,

they shall wash with water, so that they will not die.

파브-접속사로 이끄는 부문장을 한글 번역에서는 결과절로 번역하였으며, 영어 번역에서는 단순한 병렬문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결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목적-부문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출애굽기 30:20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어 모두 결과절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부문장으로 읽어야 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 물로 씻어야 한다.”

## 7. 나오기

이상의 고찰에서 쉬운 일상 언어로의 성서 번역의 장애 요소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 성경에 나타나는 고전 어투의 서술어를 일상적 어투로 전환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분명할 뿐 아니라, 본문의 가독성이 훨씬 높아져서 쉬운 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어법과 한국어 어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파브-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번역할 때, 모두 병렬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부문장으로 번역한다면, 본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투고 일자: 2012. 10. 13.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